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참여노인의 주관적 인식 연구 : Q 방법론의 활용

신근화* · 신주화**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참여노인의 주관적 인식유형을 파악함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32개의 엄선된 진술문을 토대로 28명의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Q분류를 하게 하였다. Q방법론을 통한 참여노인들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은 첫째, ‘아르바이트형’, 둘째, ‘노후대비형’, 셋째, ‘관리강화형’, 넷째, ‘역량강화형’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가 주는 함의는 먼저, 노인일자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상담 및 알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참여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역량강화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의 욕구와 인식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유형개발과 전문적인 업무관리 및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와 실무자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에 일의 가치, 의미, 정체성,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주제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주관적 인식, Q방법론

*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강사 (geun-hwa@hanmail.net)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cuchon2011@nate.com)

1. 서론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율로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노인부양 부담이 증대되고 노후에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여 노인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는 가족부양 기능이 약하고 노인소득보장정책의 미비로 퇴직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고령노인을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지지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국무조정실, 2002). 이에 노인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소득창출을 위한 경제적 토대마련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오늘날 이익창출과 생산성,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시장에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유지하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지은구, 2009).

이에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의 보충적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보호된 시장에서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4). 현재까지 노인일자리는 그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노인들이 다양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며, 또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경향에 맞추어 더욱 더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노인일자리의 정책적 효과성을 증진하고 평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참여노인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 욕구 등 주관적 인식이 반영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수행된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많은 연구들이 노인 일자리의 현황 및 평가, 발전방안과 연계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제시(이인재, 2005; 김수영, 2008; 이가옥·이지영, 2005; 지은구, 2009; 김상호·김형수, 2003),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의 심리적 측면을 포함한 사업의 단선적인 효과성(초의수·강수영, 2008; 권치영 외, 2007; 김소향·이신숙, 2009; 권구영·박공식, 2007),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만족도, 직무만족도 및 근로의욕(서양열, 2004; 서소연, 2006; 문승삼, 200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7),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권구영·최정민, 2007; 김옥희, 2008), 사회적 관계(함철호·오혜연, 2010), 정신건강(강종수·김옥희, 2010)에 관한 연구 등에 치중하고 있다.

이들 기존연구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심리사회적 효과성, 직무만족도, 삶의 질, 사회적 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이고 경제적 요인 간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규명하고 전문가적 입장에 노인인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서 이들 연구의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연구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규명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에 통계적 변인보다 더 중요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참여노인 즉, 행위자의 가치와 의견, 관심 등 주관적인 인식 구조를 간과하고 있다. 어떤 현상과 대상에 대한 보편적이고 표면적인 설명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과 경험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생각들이 공존함으로써 개인의 주관적 인식들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고 분류되는지를 파악하는데 기존연구들은 제한적이다. 즉,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참여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태도와 가치, 의견 등이 포함된 주관적 인식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참여노인의 가치와 태도, 의견 등을 포함한 주관성을 체계적이고 수량적 방법으로 연구하기 위해 독특한 심리측정학적 원리를 갖는 Q-방법론(Brown 1996: 김순은, 1999: 김홍규, 2008)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참여노인 개인들의 총괄적인 인식의 모습과 태도를 자세히 도출할 수 있고, 이로써 참여노인의 주관적인 인식 유형을 밝히고 그 의미를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으로 해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Q-방법론을 적용한 본 연구의 수행결과는 참여노인의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주관적 인식을 밝힌 것으로써 효과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발전방안과 노인의 주관적 인식을 반영한 적합한 노인일자리사업유형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노인인력활용의 중요성과 노인의 취업욕구

오늘날 노인은 과거에 비해 노후가 상당히 길어지고 경제적으로 더 이상 자녀들의 부양

에 의존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길어진 노후에 비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며 사회적인 노인부양체계도 미약함으로 노인들은 더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은 퇴직 이후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역할상실로 인해 무기력함과 우울증 등과 같은 심리정서적인 고통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오늘날 노인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한 노인들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이들이 역할상실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무기력하고 사회복지혜택의 의존자로서 삶을 추구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활동참여의 기회제공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서 사회적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요청된다. 먼저, 노인들에게 소득창출을 위한 경제적 활동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인이 의존적이고 비생산적인 사회구성원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권치영 외, 2007). 제도적으로도 노인이 자립적이고 활기찬 노후를 적응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의 기반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의 경제적 활동은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두 이점이 있는데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는 부양비 경감, 연금부담의 감소, 사회보장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어 노인인력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지은구, 2009). 노인인력활용은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비용절감과 국가경제력 확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노인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노후의 보충적 소득활동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제공받음은 물론 가족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권치영 외, 2007; 지은구, 2009). 또한, 노후의 경제적 활동 또는 사회적 활동은 노인들의 심리정서적 안녕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서양열, 2004; 서소연, 2006; 문승삼, 2006). 특히 노년의 다양한 사회활동 중 소득 활동은 노년의 경제적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김동배, 2004). 최근 이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과 역할상실로 인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에 직면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경제적 소득활동참여는 자기효능감과 자존감, 생활만족도, 삶의 만족도,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다(최의수·강수영, 2008; 권치영 외, 2007; 김소향·이신숙, 2009; 권구영·박공식, 2007; 이지현 외, 2008; 강종수·김옥희, 2010).

하지만, 현실적으로 퇴직 이후에 노인들의 직업능력, 경력, 기술을 활용하여 노동

시장에 참여하거나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며,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반체제 또한 미비하다(허준수, 2006). 이에 반해,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의 욕구는 오히려 강해지면서 소득활동에 대한 상당한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동배 외(2004)의 노인취업욕구 분석에 따르면, 취업희망 노인 중 경제형 일자리 희망이 61%, 노인의 3분 2는 경제적 이유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고, 그 밖에 ‘삶의 의미나 존재감을 찾기 위해서’가 18.9%,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가 11.8%였다. 노인의 직업활동실태에 관한 2008년 통계자료를 보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31.3%이며, 향후 취업희망자의 비율은 57.1%였다. 이를 통해 과반수이상의 노인들이 경제적 수입을 창출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소득활동참여를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노인에게 취업 또는 소득활동은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 심리정서적인 안녕감과 사회적 인력활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독립적이고 경제적인 지위를 가지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시스템마련과 사회적 인식개선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노인 개개인이 자신의 역량, 능력, 욕구에 따라 소득활동, 교육, 문화활동 등의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성공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노인 일자리사업의 개념과 특성

노인일자리사업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에 대비하고자 사회적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노인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노인인력운영센터, 민간사업수행기관이 사업운영주체가 되어,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참여를 확대시키며 또한 경제활동 참여로 보충적인 소득지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의 하나이다(보건복지부, 2004).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로써 제2조에서 노인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 노인인력운영과 관련한 기본이념임

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3조에서는 노인적합직종의 개발 및 보급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과 노인적합 일자리의 개발 보급과 교육 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권구영, 2007).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2004년 일자리사업계획을 시작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인 부양부담을 경감하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보건복지부, 2004). 이러한 노인일자리사업의 기본 목표는 첫째,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창출, 둘째, 노인의 긍정적 사회 참여 및 삶의 질 향상, 셋째, 노인도 할 수 있다는 사회분위기 확산이다. 이러한 목표에서 보듯이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을 넘어서서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초의수·강수영, 2008, 재인용).

노인 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주관하며, 지역사회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지방자치단체, 대한노인회 등이 사업의 수행을 위탁받아 진행된다. 노인 일자리사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업수행기관별 중점추진 영역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공익형은 시·도·구청장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다. 이러한 공익형의 사업종류는 거리환경지킴이, 교통질서 지킴이, 지역행정 지킴이 등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 영역 내에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는 것이다. 노인복지회관은 교육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다. 교육형은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노인들을 중심으로 전문교육과정에 강사로 파견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숲 생태 해설, 문화해설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시니어클럽은 시장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다. 시장형은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소규모 업체를 공동으로 창업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업 초기 운영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정착을 돕는데, 주로 지하철 택배, 세탁소, 식품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복지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지형은 노인을 사회적 서비스자원으로 활용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력파견형은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 후 노인이 사업체에 가서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주요 일자리에선 주유원, 경비원, 시험감독관 등이 있다. 인력파견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일자리 창출 실적이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노인 일자리사업의 참여 대상연령은 65세 이상으로 참여기간은 일반적으로 6-7개월 이내이며, 주12시간을 근무한다. 또한 일자리 참여에 따른 대가는 월 평균 20만원 내외의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과도 구분된다. 그러나 이 보수는 노년기 생계유지를 위한 충분한 소득이라기보다는 보충적인 소득지원 형태를 띠며, 1일 3-4시간, 주3-4일 근무형태로 일반 취업에 비해 근무 일수가 낮아 노인의 실질적 사회참여 확대, 소득 증진, 건강증진을 가져오기에 한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3)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선행연구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 및 평가, 발전방안과 연계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제시(이인재, 2005; 김수영, 2008; 이가옥, 2005; 지은구, 2009; 김상호·김형수, 200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직무만족도, 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초의수·강수영, 2008; 권치영 외, 2007; 김소향·이신숙, 2009; 권구영·최정민, 2007),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만족도,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 연구(서양열, 2004; 이지현 외, 2008; 김옥희, 2008; 한국인력개발원, 200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인식하는 효과성(권구영·박공식, 2007), 사회적 관계(함철호·오혜연, 2010), 정신건강(강종수·김옥희, 2010) 등을 다루고 있다. 노인일자리 관련 주요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의 일자리참여 심리적 효과성에 관해서 김소향·이신숙(2009)은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이 비참여노인보다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 간은 높은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다. 권치영 외(2007)의 연구에서도 일자리 참여집단이 비참여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영향요인에 비해 일자리 참여여부가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변인으로 나타난 노년기 심리적 복지에 기여함을 시

사하고 있다. 이는 초의수·강수영(2008)에 의해서도 일자리 참여 여부와 몰입정도가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일자리 참여 노인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 등 심리적 복지감은 차별적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경제적 논리, 생산성 논리, 공급자 중심, 양적 기준 중심이 아니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제고, 노인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 고취, 수요자이자 노동주체인 노인중심, 질적 혁신 기준들을 고려해야 됨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함철호·오혜연(2010)은 노인 일자리사업이 참여노인의 사회적 관계와의 영향력을 규명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 관계의 빈도와 지지 기능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임을 규명하여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권규영·박공식(2007)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동기 및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특히, 경제적 수준과 교육수준 등에 의해 노인일자리사업의 만족도, 사회참여수준, 주관적 효과성에 차이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일자리 유형을 개발함으로써 효과성을 증진하여야 할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또한 권규영·최정민(2007)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과 미참여 노인 간의 비교를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안녕감과 생활만족도가 미참여노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하위유형에 따른 안녕감 및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공익형에 비해 교육형과 복지형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이지현 외(2008)는 노인의 재취업이 삶의 질(자아존중감, 건강, 가족과의 관계, 대인관계, 경제상태, 여가생활)과 관련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취업노인의 경우가 여가생활을 제외한 전체적인 삶의 질 관련요인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김옥희(2008)의 연구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실태(일자리사업 유형, 일자리사업 참여동기, 일자리 사업기간, 일자리 사업 만족도)와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일자리사업 유형에 있어서는 교육형, 일자리 참여동기는 자신의 경험, 지식의 활용, 삶의 보람을 위해, 사회참여를 위해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또한, 일자리 사업과 일자리사업의 만족도도 삶의 질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중수·김옥희(2010)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참여유형과 참여기간, 사업만족도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규명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7)에서는 2006년 노인일자리사업 성과평가의 일환으로 참여노인, 교육형 수요처 및 복지형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업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06년도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사업참여 동기는 생활비·용돈 마련을 위해서가 7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자 만족도는 월보수, 하는 일, 근무환경, 근무시간, 근무기간, 담당자 운영능력의 6개 항목에 평균 3.5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한 효과성은 4개항목(경제적 도움, 육체적 건강증진, 정신적 건강증진, 사회관계 개선) 평균 3.9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육구수준은 월 보수 33.6만원, 주당 근무일수 3.6일, 일 근무시간 4.0시간, 참여기간 9.6개월로 나타났다. 개선 요구사항은 기간연장(1,062)과 보수인상(835명)이 대부분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퇴직한 노인들에게 있어서 일은 퇴직이후 새롭게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며 생산활동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노후 일상생활과 삶의 의미를 재구성한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우국희(2007)의 연구에서는 중장년층들은 물질적 풍요나 경제적 안정과 같은 금전적 보상보다, 자기 개발, 자기 충족, 이타성, 정신적 가치, 공동체적 삶에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송인주(2008)는 퇴직 남성노인이 사회적 일자리에 재취업하여 정착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재취업 경험의 의미들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인 퇴직 후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얻는 의미는 첫째, 생활시간의 재구성으로 노인의 휴식 욕구, 가족원과 사회적 관계의 욕구, 여가활용의 욕구 둘째, 생산성의 재구성으로 이는 노인이 자신의 경력과 이별하고 신체적 능력과 사회적 요구,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을 설정하는 고충의 과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은 노인 일자리사업의 심리사회적 효과성, 직무만족도, 참여만족도 또는 삶의 질에 관계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규명하고, 전문가의 입장에게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정착과 활성화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현상에 인구통계학적 변인보다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참여노인의 가치와 의견, 관심 등 주관적인 인식 구조를 간과하고 있다. 어떤 현상과 대상에 대한 보편적이고 표면적인 설명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과 경험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생각들이 공존함으로써 개인의 주관적 인식들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고 분류되는지를 파악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즉, 이들 기존연구들은 참여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가치와 태도, 관심, 의견 등의 주관적 의미와 인식을 파악하는 데는 매우 제한적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Q 방법론을 활용한 것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스스로가 진술문을 비교하여 순서를 정하고 이를 모형화시켜 자신의 주관성을 표현해가는 과정을 거쳐 개인이 자신의 주관적 방법으로 특정한 주제를 바라보는 방법을 탐구하고 유형화하는데 효과적인 연구방법(Kerlinger, 1986)이기 때문이다.

Q 방법론은 자아발견적(heuristic)이며 연구자 자신의 관점이 개입되지 않으면서 대상자들의 감지되지 않는 심리 내적 속성들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으로 이론검증에 효과적이며, 개인의 행동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인간의 행동특성을 탐색하는 연구에 적절하다. Q 방법은 양적이며 질적 분석을 동시에 시도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질적 판단을 가능하게 해 준다(김현수·원유미, 2000). Q 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적³⁾ 영역, 즉 가치, 태도, 신념, 확신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론으로서, 개인의 주관성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방법이라는 독특성으로 인하여 이에 견줄 만한 이론이나 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 적용범위가 넓은 방법론이다(Brown, 1995).

³⁾ 주관성이란 개인의 내적 증거들에 기초하므로 자아지시적이다. 이것은 ‘순수한 행위’로서 “내 의견으로는 ~”으로 시작할 수 있는 진술이다(Brown, 1980; 김홍규, 1996). 즉, 주관성이란 역동적인 상황 속에서 자결적으로(operantly) 정의되는 개인의 관념을 말한다.

1) Q 진술문(Q statements)의 수집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참여노인의 인식을 조사하여 인식유형을 분류하는 것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진술문 확보가 중요하다. Q 방법론에서 Q 진술문은 각 개인들이 표출하는 의사소통가능한 모든 주관적인 진술들의 총합으로서 한 문화 내에서 공유되는 의견이나 느낌의 총체를 말한다(김범중, 1999). Q 진술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많은 수의 Q 진술문을 수집하여야 한다. Q 진술문을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구술형과 추출형이 있는데, 구술형은 연구자가 연구와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주제에 관한 면접을 통해 진술문을 얻는 방법이고, 추출형은 연구주제와 연관된 문헌이나 사진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 진술문을 작성하는 방법이다(김순은, 2007: 32-33).

따라서 진술문은 논문을 비롯한 다양한 문헌조사와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면접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의 수백 개가 수집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진술문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추출형의 방법으로 문헌 외에 다양한 출처를 통해 진술문을 작성하였다. 연구자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연구논문(김소향·이신숙, 2009; 권치영 외, 2007; 초의수·강수영, 2008; 서양열, 2004; 김옥희, 2008; 권구영·최정민, 2007; 김동배 외, 2004; 우국희, 2007; 이문국, 2008; 지은구, 2004, 2009; 서소연, 2005; 심정영, 2005; 장수정, 2009)등 20여 편과 각종 보고서 및 발표자료, 단행본, 신문기사 등을 토대로 400여개의 문장을 추출하였다.

2) 진술문의 표본(Q sample)

Q 연구의 척도구성에 있어 강조되어야 할 일차적 관심은 문항의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이다. 진술문은 40-50개의 문항이 적절하다고 한다(Brown, 1980). Q 방법론에 있어 연구의 해석과 결과는 Q 진술문을 통해서 도출되어야 하기에 Q 진술문은 연구의 주제에 관한 한 대표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Makeown and

Thomas, 1988; 김순은, 2007: 36,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자료에서 400여개의 진술문을 수집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절히 표현하는지에 대하여 먼저 관련전문가의 검토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수정·작성하였다. 그리고 중복되거나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성이 약한 진술문에 대한 재검토과정을 세 차례에 걸쳐 수정하여 48개의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최종 표본은 본 연구의 대상자인 노인들을 감안하여 보다 알기 쉬운 문장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문장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에 총 7차에 걸친 검증과정을 통해 32문항이 최종적인 진술문으로 도출하였다.

3) 연구대상자(P sample)의 선정

Q 방법은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의 내적 중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연구방법이므로 대상자(P sample)의 수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선행연구 분석결과, 일반적으로는 30명 내외로 선정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1명을 표본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McKeown & Thomas, 1988; Kerlinger, 1986; Brown, 1980).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 노인복지관 3곳을 선정하여 보건복지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노인 30명을 편의 추출하여 방문을 통해 직접설문을 실시하였다. 2009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앞서 연구자가 설문지의 작성요령을 설명한 다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응답자 중 Q 분류방법과 진술문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진술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총 30부 중에서 결측값이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8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4) Q 분류(Q sort)⁴⁾

카드는 0을 기준으로 유사정상분포가 되도록 카드 수를 강제적으로 할당하여 분류하도록 하였다. 진술문이 32항목인 이 연구에서는 각 점수별로 [그림 1]과 같이 분류하였다. 또한 카드 분류 종료 후 가장 동의한 진술문과 가장 동의하지 않은 진술문에 대해 그 이유 및 그렇게 분류한 전체적 생각을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질문을 하였다. 이는 결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유용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Q 분류판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3	-2	-1	0	1	2	3

5) 통계학적 분석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PQMethod release 2.11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간의 요인 행렬표를 통해 전체 변량 네 개의 Q 요인을 추출하였다. Q 분류는 Q PCA(principal components factor analysis)에 의해 분류되었다. Q 요인은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변수

⁴⁾ Q 분류표의 양쪽 극단을 정상분포보다 두텁게(최소한 2개 이상) 한 것은 관계의 분석을 이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강제로 유사정상분포에 할당하는 것에 대한 통계적 논란, 분류방식이나 분포의 모양 중 어떠한 것이 우수한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나,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Brown, 1980; Kerlinger, 1986). Q 방법론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개인에게 분포를 통일함으로써 즉, 분포의 밀집성과 산포도를 무시함으로써 모든 개인이 동일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갖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각 항목분류가 다른 항목의 분류와 독립적이지 못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보다는 개인 또는 집단내에서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Q 방법론의 목적과 자아참조(self-reference)에 의해 진술문들 간의 상대적 순위를 매기는 Q 방법론의 원리에 부합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김범중, 1999).

(demographic data)뿐만 아니라 진술문(statement)들의 각 요인가(factor score)를 이용하여 해석된다. 산출된 점수와 개방형으로 기술된 내용을 분석하여 해당 요인에 대한 특성을 정리하였다. 요인 해석 후 요인구조(요인 수와 요인 특성)를 파악한 뒤 요인(조사대상자 집단)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요인 명을 부여하였다.

4. 분석결과

1) 참여자들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

조사대상자들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을 요인분석한 결과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연구의 결과 나타난 요인은 동일한 견해를 갖는 응답자 집단을 말한다(김순은, 1999). 조사대상자들의 노인일자리사업 인식유형의 요인행렬표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요인 1은 11명, 요인 2는 5명, 요인 3은 5명, 요인 4는 2명으로 구성된 응답자군이다. 5명의 응답자(S3, S16, S26, S27, S28)는 어떤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Brown, 1986).

[표 1] 연구대상자의 요인행렬 및 인구학적 특성

응답자	Components				인구학적 특성			
	1	2	3	4	연령	학력	소득수준	참여기간
S1	0.0061	-0.0787	0.7351*	-0.1168	73	고졸	60	4년
S2	0.0988	-0.2640	0.4563*	-0.0125	66	고졸	100	2년
S3	0.4405	0.0670	0.4672	-0.3243	68	중졸	20	2년
S4	0.0279	-0.2639	0.1133	0.7633*	66	고졸	20	2년3개월
S5	0.0238	0.1287	0.3717*	-0.0839	70	중졸	40	3년1개월
S6	0.2272	-0.1415	0.6464*	0.1607	67	중졸	80	3년1개월
S7	0.7400*	-0.0166	0.0277	-0.2431	65	중졸	80	1년
S8	0.4677*	0.3325	0.0176	-0.0127	73	중졸	50	-
S9	0.7951*	-0.0294	-0.0143	0.3151	65	고졸	30	2년4개월
S10	0.7192*	0.0184	-0.0109	0.2389	72	초졸	20	2년4개월
S11	0.5064*	0.2241	0.0487	0.1437	69	중졸	20	1년2개월
S12	0.5184*	0.1527	0.2900	-0.2925	68	중졸	30	11개월
S13	0.5070*	-0.1915	-0.4128	-0.1493	69	대졸	50	1년6개월
S14	0.0431	0.1550	0.7086*	0.3044	74	중졸	10	1년
S15	0.6464*	-0.1863	0.1165	0.2409	71	고졸	20	2년
S16	0.4492	-0.1226	0.4628	0.4268	69	고졸	30	4년
S17	0.3032	0.6353*	0.0349	0.2867	77	고졸	25	2년
S18	-0.1157	0.4810*	-0.0487	-0.0132	67	초졸	40	2년
S19	0.7511*	0.0754	0.2451	0.0139	67	고졸	30	1년
S20	0.0850	0.2533	-0.0325	0.5764*	72	대졸	150	-
S21	0.3374	0.6012*	0.2370	-0.0948	69	대졸	20	2년1개월
S22	0.5937*	-0.2294	0.0037	-0.2343	75	초졸	40	3년
S23	0.0466	0.4971*	-0.1793	-0.1771	80	중졸	50	1년
S24	0.4646*	0.0495	0.2603	0.0797	67	중졸	200	6개월
S25	-0.0580	0.5932*	0.1619	-0.0654	-	-	-	-
S26	-0.0197	0.4106	-0.2848	0.2968	69	고졸	20	3년
S27	0.2803	-0.3681	0.2948	0.3974	77	고졸	50	2년
S28	0.5713	0.1645	0.2283	-0.5271	70	초졸	100	2년
Eigen values	5.9609	2.8379	2.2727	2.2555				
설명량	21	10	8	8				
누적설명량	21	31	40	4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Q 요인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이 Eigen 값이 1.0 이상의 요인이 네 가지⁵⁾로 나타났으며 설명량은 각각

⁵⁾ Q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고유값이 1.0이상인 요인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둘째, 좀 더 완화된 기준으로써 유의한 요인적재값을 기준으로 오차범위 5%수준에서는 그 요

21%, 10%, 8%, 8%이고 네 가지 요인 모두가 설명하고 있는 정도는 48%이다.

진술문 각각의 요인가는 다음 [표 2]와 같다. 진술문들의 요인가는 Q 요인의 해석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한다(McKeown & Thomas, 1988). Q 방법론에 의해 생산되는 각 Q 요인의 해석과 정의는 +3, -3와 같이 높은 점수를 갖는 진술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F1 - F5까지의 요인배열에서 +3을 가진 진술문을 추출하여 동의한다고 응답한 진술문에 포함시켰고, -3를 가진 진술문을 추출하여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진술문에 포함시켜 해당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2] 진술문의 요인가(factor Q-sort values for each statement)

진술문		요인배열			
		F1	F2	F3	F4
01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중요하다.	2	-2	0	3
02	일시적인 일자리보다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3	1	2	2
03	노인일자리사업은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해 준다.	0	-1	-2	1
04	노동참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시킨다.	3	-3	-1	-1
05	노동참여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게 한다.	1	3	-2	1
06	노인의 노동시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1	-2	0	1
07	노인일자리참여는 사회적 역할의 기회를 제공한다.	0	-1	0	2
08	노인인력활용을 위해서는 은퇴이전 교육 및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	-3	0	0	1
09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2	0	2
10	참여기간의 연장과 임금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2	3	0	-3
11	노인일자리참여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1	2	2	-2
12	노인일자리참여는 대인관계개선에 도움이 된다.	0	0	-1	1
13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0	-2	-1	-3
14	노년기에 적절한 소득은 심리적 고립과 소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	0	1	0
15	노인인력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1	1	1	0
16	일자리유형과 형태에 따른 소득수준을 다양화해야 한다.	1	-1	-1	-2
17	국가에서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및 사업수행기관을 확대해야 한다.	0	1	2	2
18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를 위한 사전교육과 정기교육이 필요하다.	-1	0	-1	0

인 안에 적어도 두 개의 적재값이 1.96(SEr)=0.35보다 커야 한다. 마지막으로, Humphrey의 규칙인데 한 요인 내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두 개의 적재값을 곱한 것이 표준오차의 두 배보다 큰 요인까지 선정하는 방법(Brown, 1980)이다.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 기준을 사용하여 네 가지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19	노인일자리참여는 가족간의 관계 개선을 가져온다.	0	1	1	-1
20	노인일자리 사업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	-1	2	1	1
21	노인일자리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1	0	-2	0
22	노인일자리사업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1	0	-1	3
23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자의 적극적인 태도와 참여인식이 중요하다.	0	0	0	0
24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홍보와 협조의 노력이 필요하다.	-1	-1	1	-1
25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일자리에 참여한다.	-2	-1	-3	-1
26	일과 여가활동이 공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0	1	-3	-2
27	노인일자리사업에서는 근무환경이 중요하다.	-3	2	-2	-1
28	노인일자리사업에서는 동료관계 및 지지가 중요하다.	-2	-1	1	-2
29	노인의 근로능력과 기술을 고려한 직무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2	-2	0	0
30	노인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	2	1	3	0
31	노인일자리사업은 중장년층의 실직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필요하다.	-1	-3	2	1
32	노인일자리사업은 기관의 태도와 담당자의 노력이 중요하다.	-2	0	3	-1
Variance = 2,500 St. Dev. = 1,581					

[표 3]은 네 가지 유형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유형 1과 유형2의 상관계수는 .2008, 유형 1과 유형 3은 .1963, 유형 1과 유형 4는 .0943, 유형 2와 유형 3은 .0557, 유형 2와 유형 4는 -.1035, 유형 3과 유형 4는 .1552로 나타났다. 이는 각 유형간의 유사성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Q 방법론에서의 요인 간 상관관계는 양적연구에서의 요인 분석방법과는 달리 요인간의 완전한 독립성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김수강, 2001). 그렇지만 상호독립적일수록 각 요인별로 개념화될 욕구의 유형들 사이에 차별성이 뚜렷함을 말해준다.

[표 3] 유형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s Between Factor Scores)

	1	2	3
1	1.0000		
2	0.2008	1.0000	
3	0.1963	0.0557	1.0000
4	0.0943	-0.1035	0.1552

2) 유형별 특성

(1) 유형 I (아르바이트형)

구분	진술문(Q statement)	Z-score
긍정	2. 일시적인 일자리보다는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2,212
	4. 노동참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시킨다.	1,646
부정	27. 노인일자리사업에서는 근무환경이 중요하다.	-1,809
	8. 노인인력활용을 위해서는 은퇴이전 교육 및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	-1,769

유형 I 은 참여자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보충적 생계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일자리 참여의 목적을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유지와 여가활용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유형 I 을 아르바이트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I 의 진술문에서 긍정 혹은 부정으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현재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 일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야. 그리고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 건강이 더 나빠지더라.(S7)

우선 돈은 작게 주더라도 지속적인 일자리가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닌가.(S9)

일하니까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살기에 도움을 줘서 계속 했으면 해.(S22)

일자리에 참여해야지 활력소도 되고 건강에도 좋아.(S8)

(2) 유형 II (노후대비형)

구분	진술문(Q statement)	Z-score
긍정	10. 참여기간의 연장과 임금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2,188
	5. 노동참여는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갖게 한다.	1,584
부정	4. 노동참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시킨다.	-2,413
	31. 노인일자리사업은 중장년층의 실직에 대한 대응책으로도 필요하다.	-2,352

유형 II는 현재의 생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다가올 미래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참여자들은 생계 유지에 못 미치는 보수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하여 노후대비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형 II는 노후대비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II의 진술문에서 긍정 혹은 부정으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증장년층에 대한 대응책으로 할 경우 생활이 힘든 더 많은 노인들이 참여를 못하니까.(S17)

나이가 들수록 수입은 적어지고 해마다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똑같으니까 살기가 더 어려워. 그니까 임금을 조금 더 올려줬으면.(S17)

(3) 유형 III(관리강화형)

구분	진술문(Q statement)	Z-score
긍정	32. 노인일자리사업은 기관의 태도와 담당자의 노력이 중요하다.	2.009
	30. 노인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	1.805
부정	25.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일자리에 참여한다.	-2.149
	26. 일과 여가활동이 공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1.631

유형 III은 노인일자리참여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공급위주의 정책이 시행됨으로 인해 사업수행기관의 획일적인 업무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참여자 관리시스템 정비와 전달체계의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유형 III은 관리강화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III의 진술문에서 긍정 혹은 부정으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일자리사업이 지금보다 많이 하려면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니까.(S02)

노인의 의견도 중요하고 기관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S05)

(4) 유형 IV(역량강화형)

구분	진술문(Q statement)	Z-score
긍정	1.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개발이 중요하다.	2.173
	22. 노인일자리사업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1.449
부정	10. 참여기간의 연장과 임금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1.941
	13.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1.941

유형 IV는 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개발, 자기성장, 자기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며 일이 주는 사회적인 의미와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일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소속감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유형 IV는 역량강화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IV의 진술문에서 긍정 혹은 부정으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노인들 각 개인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즐겁게 일할 수 있지 않은가.(S04)

일에 참여했을 때 최선을 다해 일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S20)

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경남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28명을 대상으로 Q방법론을 활용하여 네 가지 유형을 도출하였고,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유형 I은 아르바이트형으로 참여노인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보충적 생계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일자리참여의 목적을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유지와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유형 II는 노후대비형으로 현재의 생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다가올 미래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참여노인들은 생계유지에 못 미치는 보수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하여 노후대비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형

Ⅲ은 관리강화형으로 사업수행기관의 획일적인 업무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공급위주의 정책이 시행됨으로 인해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참여노인의 관리시스템 정비와 전달체계의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유형 Ⅳ는 역량강화형으로 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개발, 자기성장, 자기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며 일이 주는 사회적인 의미와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일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소속감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참여노인은 노인일자리사업을 다양한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사업의 필요성 및 지속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성 확보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단순히 일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노동부 각 서비스기관과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참여자들의 직업경험, 욕구, 역량, 적성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상담 및 알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직업에 대한 도전의식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참여노인들의 역량개발 및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보충적 성격의 일자리사업과 생계유지성격의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인의 욕구와 인식,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사업유형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수행기관의 업무처리지침을 매뉴얼화하여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참여자가 재취업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참여자와 실무자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에 일의 가치, 의미, 정체성,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 연구는 효과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발전방안과 노인의 인식을 반영한 사업유형개발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무작위 표본추출이 아닌 임의 추출을 활용하여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본 연구의 측정도구가 연구주제가 갖는 또 다른 측면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연구방법론상 참여자의 주관

성을 측정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향후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덧붙인다. 첫째, 경제적인 소득보장과 동시에 여가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일자리개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10년 후에는 공적연금수령노인들이 더욱 더 증가하게 되어 여가활동측면의 일자리의 수요가 증대할 것이다. 따라서 일과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일자리가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참여자에 대한 담당자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즉 일자리참여 종료 후 겪게 되는 심리적, 물질적, 건강, 가족문제, 일자리연계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연계 일자리를 발굴하고 노인인력창출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중 인력파견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일자리창출 실적이 낮은 실정이다. 이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강종수, 김옥희 (2010). 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48권, 279-298.
- 김동배, 이윤화, 안인경 (2004). 노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1), 107-127.
- 김범중 (1999). Q 방법의 방법론적 이해와 연구에의 적용. 경영연구 제8권.
- 김소향, 이신숙 (200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1), 309-327.
- 김수강 (2001).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영 (2008). 부산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24.
- _____ (200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사전교육의 효과성. 노인복지연구 제43권, 331-352.
- 김순은 (1999). Q방법론의 이론적 배경과 비판적 고찰. 정책분석평가학회보 9(2), 201-216.
- _____ (2007). Q방법론과 사회과학. 금정.
- 김상호, 김형수(2003). 빈곤노인의 생산적 고령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223-237.
- 김옥희 (2008). 대도시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분석. 사회보장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89-115.
- 김현수, 원유미 (2000). Q 방법론. 교육과학사.
- 김홍규 (2008). Q방법론 :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권치영, 김선웅, 임중철, 이홍직(2007). 일자리 참여가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7(2), 427-443.
- 권구영, 박공식 (2007).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7(3), 527-547.
- 권구영, 최정민 (200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과 삶의 질 간의 관계.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38권, 51-78.
- 문승삼 (200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04). 2004년도 노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보건복지부, 노인인력운영센터 (2005).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설문분석결과. 보건복지부-노인인력개발원.
- 보건복지부 (2007). 2007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서울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2008). www.mw.go.kr
- 서소연 (2006).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직무만족도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정영 (2005). 노인적합형 사회적일자리 개발에 관한 연구- 홈헬퍼, 실버시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인주 (2008). 퇴직 남성노인 재취업 과정의 의미- 사회적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8(3), 497-514.
- 서양열 (200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에 관한 연구: 전라도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24권, 31-51.
- 우국희(2007). 일(work)의 의미변화와 사회적 공헌- 중장년 퇴직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연구 제36권, 63-90.
- 이문국 (200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구의 탈빈곤 결정요인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지현, 강형곤, 정우식, 채유미, 지영건 (2008). 취업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서울지역 남성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8(1), 143-156.
- 이인재 (2005). 노인일자리사업현황 및 평가. 노인일자리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심포지움 자료집.
- 이가옥, 이지영 (2005). 고령자 고용정책의 대응전략에 대한 비판과 시민권의 원리를 통한 대안 모색. 한국노년학 25(2), 171-193.
- 장수정 (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담론분석 : 시민권과 성인지적 접근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44권, 209-226.
- 지은구 (2009). 노인일자리사업 정착을 위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방안. 사회과학논총 28(1), 357-410.
- 초의수, 강수영 (2008).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의 자아존중감·자기효능감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6(3), 15-32.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7).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 조사결과보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함철호, 오혜연 (2010).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48권, 229-250.
- 허준수, 이금룡, 원영희 (2006). 노인 인적자원 활용의 현황 및 개선방향. 한국노년학. 256-297.
- 통계청 (2007). 2008년 7월 고령층(55-79세)부가조사.

Brown, S. (1980).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 of Q methodology*. New Haven: Yale Univ. Press.

Brown, S. R. (1995). Q methodology as the foundation for a science of subjectivity.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October.

Brown, S. R. (1996). Q methodology and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Health Research*.

6(4), 561-567.

Kerlinger, F. N. (1986). *Foundation of behavioral research*. NY: CBS College Publishing.

McKeown, B. & Thomas, D. (1988). *Q methodology*. Newbury Park: Sage pub.

A Study on Subjective Awareness of The Elderly About The Senior Employment Promotion Project : Q Methodology

Shin, GeunHwa* · Shin, JuHwa**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suggest the moves to strengthen business of employment for seniors by understanding the subjective awareness types of participating seniors for Senior Employment Promotion Project.

This study was conducted targeting 28 of participating seniors, and based on 32 statements selected regarding The Senior Employment Promotion Project, they were classified into groups using Q Methodology.

As a result, types of subjective awareness about 'The Senior Employment Promotion Project' of the elderly through Q Methodology were firstly, 'part-time job', secondly 'preparing for old age', thirdly, 'strengthening controlling themselves' and fourthly, 'strengthening their abilities'. These results imply that hands-on workers need to discuss their occupation and help them find jobs by building database of the senior employment and by considering their characteristics. Also, training and program to develop and strengthen their abilities are needed for the elderly. In addition, various projects should be developed by reflecting their desires and awareness and they have to be professionally and systematically managed. In conclusion, hands-on workers need to strengthen an education of work's value and meaning for the elderly, their identities and relationships with others so that they can improve their self-esteem.

* Lecturer, Kyungnam Univ (geun-hwa@hanmail.net)

* Doctoral Student, Pusan National Univ (cuchon2011@nate.com)

Key words: The Senior Employment Promotion Project, participating senior, subjective awareness, Q Methodology.

◆ 2010.10.18. 접수 / 2010.11.29. 1차수정 / 2010.12.7. 게재확정